

제 29 회 한국학 국제교육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

2011 년 7 월 14 일 (목) - 16 일 (토)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제 29 회 한국학 국제교육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가 "교과과정 확립과 교사 전문성을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2011 년 7 월 12 일부터 16 일까지 재미한국학교 14 개 지역협의회 및 미주한인학교 연합회, 유럽 연합회, 캐나다 연합회 등의 지역에서 총 700 여 명의 한국학교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문교로 유명하고 영국 BBC 방송국이 선정한 "일생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50 곳"에 포함되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Hyatt Regency at San Francisco Airport 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배용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며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의 기조 강연을 비롯하여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윤경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대표,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학교 입양아 교육 및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의 특강과 종이 접기 강의를 비롯하여 36 개의 개별 강의 및 6 개의 라운드 테이블 등의 강의를 진행 되었다. 2011 년은 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하 'NAKS', '낙스') 창립 30 주년이 되는 해로 30 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창립 30 주년 기념 심포지엄 등이 학술대회 행사에 참가 되었고 교사들의 역사문화 퀴즈대회와 김구재단의 교사 교육안 공모대회도 새로 시작 되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낙스)는 지난 1981 년에 창립되어 30 년이 지난 현재 북미 전역에 총 14 개의 지역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해마다 700-800 명의 한국학교 교사들이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호주, 유럽 및 중국에서 부터 참석하는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30 주년을 맞이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및 한국 역사 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 평가의 개발과 한국어 교사 전문성 교사 연수를 3 대 중점 사업으로 하여 10 대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29 회 학술대회는 이광호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와, 사업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심용휴 회장을 중심으로 한 15 대 임원진, 그리고 14 개 지역 회장단의 긴밀하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고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김구재단, 경희사이버대학교, 종이문화재단,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연합뉴스 등이 후원하였다.

한국어 교육 전문교사 양성 집중연수회

일시: 2011 년 7 월 12 일-14 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장소: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교사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다"는 말처럼 한국학교에서 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은 한국학교 교육 성패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교사 연수는 학술대회 기간 동안 늘 있어 왔지만 올해는 작년에 이어 2 회 째로 학술대회가 개최되기 전 3 일 동안 소속 한국학교 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전문교사 양성 집중연수회 (이하 '집중연수회')가 개최되었다

최미영 부회장의 사회로 개회식을 간단히 마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하루에 8 시간씩 총 18 시간의 수업을 마치는 과정으로 12 개의 지역협의회에서 54 명의 교사가 신청하여 49 명이 수료하였다. 교수 내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120 시간 교육과정 중에서 18 시간을 수료하였는데 이에는 한국어 문법론, 문법 교수론,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학 개론, 한국어 어문 규정, 그리고 화용론이 포함되었고 고려대학교 김정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해영 교수, 경희사이버 대학교 방성원 교수, 국립국어원 이승재 박사가 강의를 맡았다.

수료식은 목요일 점심 시간에 진행되었고 집중연수회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참석한 국립국어원 권재일 원장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심용휴 총회장 공동 명의로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집중연수회 수업을 받은 교사들은 열정을 다하여 강의하고 교사로서의 모범도 보여준 교수님들께 감사했고 연수회 직후에 받은 평가서에서 선생님들은 모든 교수님들께 100%에 가까운 최대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집중연수회를 통하여 낙스 선생님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집중연수회는 2010 년 시애틀 학술대회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받아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에서 발행하는 한국어 교원 3 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문 한국어 교사로서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2012 년 학술대회에도 더 많은 교사들이

집중연수회에 참석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받고 동시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을 더 잘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



목요일 특강 및 만남의 시간

일시: 2011 년 7 월 14 일 목요일 오후

장소: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학술대회는 권재일 국립국어원 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특강과 종이접기 강습, 한국학교에서의 입양아 교육 등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권재일 국립국어원 원장은 '한국어 정책과 한국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는데 한국어는 사용하는 인구수로 볼 때 세계 여러 언어 가운데 13 위 안에 들고 인터넷 사용 인구로 볼 때는 10 위라고 하면서 오늘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와 함께 한글의 위상도 대단하여 인도네시아의 소수 민족인 짜아찌아 족의 말을 한글로 표기하게 되는 등 한글을 지구촌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길이 널리 퍼지고 있어서 문맹 타파라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념을 널리 펼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학교를 통하여 한국어와 한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데 국립국어원에서도 함께 돕기 위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 교원자격 제도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여 참석한 교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역사학자이며 전 한성대 총장인 윤경로 교수는 '우리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는 것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역사를 가르칠 때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개괄적인 내용 및 독도 문제와 동북공정 등에 대하여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었다.

고려대학교 김경근 교수는 '한민족 교육열의 동인과 그 승화'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하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교육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되짚어 보며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포 학생들이 한민족의 교육열의 시대적 적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승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남을 배려하고 돕는 습관을 먼저 길러줌으로서 세계인이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한민족이 될 수 있게 가르쳐 달라고 당부했다.

참가 교사들로부터 늘 인기가 있는 종이 접기 강좌도 특강과 실제를 통하여 교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인재로 키우는 영재 종이접기 교실 및 종이 접기 강좌를 통하여 여러 교사들이 종이접기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김인숙 편집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학교 입양아 교육 심포지엄도 5 회째로 계속 이어져서 한인 입아아를 위한 다양한 한인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취약점과 문제점을 의논하였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저녁에 있었던 '만남의 시간'에는 참석한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북가주 지역 한국학교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김일현 교사가 이끄는 한국무용단의 공연으로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 만남의 시간에는 풍성한 음식과 함께 강상인 낙스 부회장의 사회로 각 지역협의회를 소개하고 창립 30 주년을 기념하는 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2 부 순서로는 김에스더 문화부장의 사회로 한국의 민요 등을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좀 더 잘 알고 친교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개회식

일시: 2011 년 7 월 15 일 금요일 오전

장소: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7 월 15 일 오전 8 시 30 분부터 남상업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국민의례를 마치고 심용휴 총회장의 창립 30 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환영사에 이어 모든 한국어 관련 기관들과 한국 정부 및 기업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강조한 이광호 이사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낙스 창립 30 주년을 축하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관람한 후 개최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이정관 총영사의 따뜻한 환영의 인사가 있었다. 특별히 이번 학술대회에 기조 강연을 위하여 한국에서부터 참석한 이배용 국가브랜드 위원장의 "한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고 동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활발히 논의하게 되는 학술대회가 되길 바란다" 내용의 격려사가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대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독), 주미대사관 이기봉 교육관의 축사와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다음으로는 본 협의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분들을 위한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감사패 등의 수여 순서가 있었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감사장 수상자 명단

번호	성명	성별	소속	직위	소속 지역협의회
1	최연식	남	퀸지한글학교	교장	뉴잉글랜드
2	안성란	여	동북부지역협의회	임원	동북부
3	김명희	여	버지니아헬로쉽한국학교	교장	워싱턴
4	김정자	여	트렌톤한국학교	교장	동중부
5	남상업	남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사무총장	동남부
6	김윤희	여	칼린한국학교	교장	남서부
7	김미경	여	오레곤한국학교	교장	서북미
8	강정인	남	루이빌한국학교	교장	중남부
9	한희영	여	새하늘한국학교	교장	북가주
10	김선미	여	디트로이트세종한국학교	교장	미시간
11	배순영	여	캐나다한국학교협회	부회장	캐나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로표창: 이내원 전 이사장
- 국립국어원장 교육 공로상: 정용철, 심형란, 윤미자, 오정선미
- 국립국제교육원장 공로상: 남일, 김대영, 신현주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공로패 및 감사패: 이민노 직전 회장, 이내원 직전 이사장, 노옥남 서북미 지역협의회회장

각 기관과의 상호 업무 협정식과 기금 전달식도 있었다.

- 상호 업무 협정식: 경희사이버 대학교 및 대학원,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김구재단(토요일 오후에 진행함)
- 기금 전달: 본 협의회 한국후원회 회장 노영혜, 이금옥 장학재단의 이내원 전직 이사장,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개치지)
- 작품 증정: 종이문화재단에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에 작품 증정

개회식을 마치고 모든 참석자들이 단상에 모여 전체 사진을 찍었고 그 후에 이배용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장의 기조 강연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역사,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 브랜드의 방향'이라는 강연에서 이배용 위원장은 우리 한민족의 아름다운 문화 유산을 파워포인트를 통하여 보여주며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한국의 문화를 우리 학생들이 알고 세계에 전하여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고 한민족 정체성을 일깨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에서도 국사 교육 필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금요일 오후 강의

일시: 2011 년 7 월 15 일 금요일 오후 1:00-5:15

장소: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금요일 오후에는총 18 개의 한국어 교육, 교수법, 역사 문화, SAT 한국어 등에 관한 1 시간 15 분 짜리의 강의를 6 개의 반에서 3 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강의를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관심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위주로 하는 Round Table 6 세션이 진행 되었는데 주제는 성인반 운영 (권재일 국립국어원 원장), 재외동포정책(방선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낙스 전직 회장들과의 대화(심용휴 총회장), 학부모 교실 운영(김선미 선생), 한국역사를 알리자(박수산나 선생), 입양아 교육(김인숙 선생) 등이었다.





금요일 저녁 행사

1) 제 1 회 교사 한국역사문화 퀴즈대회

일시: 2011 년 7 월 15 일 금요일 오후 6:00-7:30

장소: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최근에 한국학교에서는 한국어 외에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일에 많은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데 교사들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교육의 동기를 부여하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새로 골든벨 형식의 교사 한국역사문화 퀴즈대회를 신설하였다. 퀴즈 문제는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류승렬 교수와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이 출제하였다. 심정균 홍보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심용휴 총회장의 인사말과 이배용 국가브랜드 위원장의 격려사로 이어진 한국역사문화퀴즈 대회는 선생님들의 큰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한국 역사 문화의 이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퀴즈 대회 수상 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장	수상자	지역협의회
대상	정동순	서북미
금상	최경순	동북부
은상	윤기석	동중부
	정광현	동북부
동상	소선주	중서부
	김수미	동북부
	박윤경	워싱턴

2)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및 북가주지역협의회 초청 만찬 및 문화 행사

7 시 30 분부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및 북가주지역협의회 초청 만찬이 있었고 이어서 김에스더 문화부장의 사회로 팔도 민요 소개 및 여흥의 시간을 가졌고 퀴즈대회 시상식이 이어졌다.



토요일 오전: 30 주년 기념식

일시: 2011 년 7 월 15 일 토요일 오전 8:30-10:20

장소: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이번 학술대회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창립 30 주년 기념 학술대회로 지난 30 년의 재미한국학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오는 30 년에 대한 비전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행사로 창립 3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30 주년 기념식 개최되었다. 최미영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심용휴 총회장의 인사말과 국립국어원 권재일 원장과 대한민국 국회 재외국민국 조진형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서 협의회 설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초기 회장인 서문원(3 대), 허병렬(4 대), 황보철 회장(5 대)에 대한 공로패 증정 순서가 있었다.

또한 지난 2000 년 본 지역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을 때에 모든 선생님들을 초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뜻으로 선상 만찬을 개최해 주셨던 이종문 재단의 이종문 회장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교재 개발 및 출판을 위해 20 만달러의 기금을 내어 낱스 역사상 최초로 기금위원회에 이름이 올려진 마이클 양 회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증정했다.

본 기념식 강연에서 이종문 회장은 지난 58 년 처음 미국에 왔을 때에 느꼈던 문화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하여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문화적인 이질감의 극복과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다.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이고 제 3 의 언어도 가르쳐 경쟁력 있는 재미 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하였고 특히 자제분 이야기를 통하여 미국에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생각도 나누어 주어 참석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기념식에서는 폭포형 현수막 4 개 (축 30 주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창립 30 주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차세대의 정체성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신 선생님 감사합니다)를 함께 읽으며 모든 낙스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낙스 30 년 나무를 대회장 메인 홀에 부착하여 각 참가 교사들이 지난 30 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올 30 년을 기대하며 하트형 메모지에 소망을 적어 붙여 놓은 메시지를 함께 읽으며 다음 30 년을 기약했다. 이 작은 소망의 메모들은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기 위하여 모두 모아서 웹사이트에 올려 놓았다.

북가주에서 준비한 문화 공연이 이어졌는데 한인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G2M(팀장: 강성숙)의 활기찬 춤 공연과 4-8 학년 한인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Heavenly Voices(지휘자: 강소연) 아름다운 동요 합창 공연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즐겁게 했다. 기념식 마지막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스승의 은혜'를 합창하며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모든 교사들의 마음을 찡하게 하였다.



토요일 오전: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시: 2011년 7월 15일 토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경쟁력 있는 재미한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닉스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점검해 보았다. 심포지엄은 최미영 부회장이 심포지엄의 목적 및 주제를 설명하고 패널 소개를 함으로 시작되었다.

패널리스트로는 심용휴 닉스 총회장이 <닉스의 현재>에 대하여, 조성대 SUNY 빙햄튼 교수가 <닉스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및 교육과정>,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닉스의 미래를 위한 한인 커뮤니티의 노력>, 본 지역의 한국학교 졸업생이며 스탠포드대학교 졸업생인 강지아 양이 <한국학교의 추억 및 앞으로에 대한 제언>,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윤경로 상임대표가 <닉스의 정체성 교육에 대한 정책적 제언> 등으로 함께 하였다.

제한된 시간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할 시간이 여의치 않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심포지엄을 통하여 닉스는 앞으로 한국어의 세계화와 함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토요일 오후 강의

일시: 2011년 7월 16일 토요일 오후 1:00-4:40

장소: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토요일 오후에는 총 18 개의 한국어 교육, 교수법, 역사 문화, SAT 한국어 등에 관한 1 시간 10 분 짜리의 강의가 6 개의 반에서 3 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금요일에 이어 관심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위주로 하는 Round Table 5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주제는 조진형 의원과의 대화(조진형 대한민국 국회 재외국민국 위원장), 한국어 학점 인정, 텍사스 케이스(방정웅 선생), 커뮤니티 속의 한국학교(노옥남 선생),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의 대화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백범호 향해 일지(김현진 김구재단 실장, 강남옥 부회장) 등이었다.



토요일 저녁 행사

1) 29 차 정기 총회

일시: 2011 년 7 월 16 일 토요일 오후 5:00-5:50

장소: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29 차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사업 보고, 재무 보고, 감사 보고, 이사회 보고 등의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과 예산안 심의 및 통과가 있었다. 이사 인준 그리고 2012 년 30 차 학술대회 및 총회 장소로 워싱턴 지역을 인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총회 회의록 참조)



2) 제 1 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시상식

일시: 2011 년 7 월 16 일 토요일 오후 6:00-7:30

장소: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역사문화 퀴즈대회와 함께 올해 새로 하게 된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가 있었다. 공모대회는 <재단법인 김구재단>과 본 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전 미주의 한국학교 교사들이 겨레의 큰 스승인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이 담긴 '백범일지'를 읽고 동포 학생들에게 겨레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지도안 및 교육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3 월 말부터 5 월 까지 응모작을 받아서 6 월 중에 심사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70 여 명의 한국학교 교사가 참여하였는데 동중부 지역의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정안젤라 교사가 대상인 백범상을 수상하였다. 당일 시상식은 강남옥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심용휴 총회장의 환영사와 김구재단 김호연 이사장의 축사, 김구재단과 낙스 간의 상호 협정서 교환, 김현진 김구재단 실장의 재단 소개 및 김구재단 참석자 소개와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교육안 공모대회 수상 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	수상자	지역	소속 한국학교
백범상	정안젤라	동중부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최우수상	정동순	서북미	벨뷰통합한국학교
	최경선	동북부	푸른겨레한국학교
우수상	나경애	워싱턴	열린문한국학교
	문난모	북가주	실리콘밸리한국학교
	이명진	동북부	뉴저지한국학교
장려상	강현미	동중부	좋은씨앗한국학교
	김숙희	동중부	필라한인천주교한국학교
	김용환	뉴잉글랜드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김혜련	동북부	불광한국학교
	노옥남	서북미	느티나무한국학교
	명순숙	동남부	그린스보로한국학교

	송은주	서북미	와싱턴통합한국학교
	윤선자	워싱턴	열린문한국학교
	이옥순	동남부	애틀란타한국학교
	전혜원	워싱턴	지구촌한국학교
	정미희	동북부	성바오로정하상한국학교
	홍용석	워싱턴	솔미한국학교



3) 제 7 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일시: 2011 년 7 월 16 일 토요일 오후 6:00-7:30

장소: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Burlingame, CA

7 회 째를 맞이한 나의 꿈 말하기 대회도 지난 6 년 간의 모습에서 크게 변신하였다. 각 지역의 대표 학생들은 자신의 발표 내용을 비디오로 만들어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담당 심정균 홍보부장에게 보내면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6 명을 뽑아서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새 방법의 도입이 매우 조직적이고 발전된 방법이라는 것과 시간과 노력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본선에서 심사를 해주신 분들은 이기봉 주미대사관 교육관,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 류승렬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노영혜 종이재단 이사장, 손창현 전직 회장 등이다. 본선에 진출하여 발표한 학생 및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명	학교	제목	수상
김하영	과테말라한국학교	함께 꿈을 꾸어요	금상

이예림	콜로라도통합한국학교	행복한 도전	금상
한민아	메인한글학교	나의 꿈	금상
김담윤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한국학교	요리의 마법사	금상
유미라	산호세천주교한국학교	사랑을 드리는 치과 의사	대상
다이애나 헤어	워싱턴 지역 중앙한국학교	가슴에 하나로 품은 한국과 미국	금상



4)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초청 만찬, 시상식 및 표창식

7 시 30 분부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초청 만찬이 이어졌고 장기 근속교사와 개교 20 주년 이상 학교의 표창과 시간도 있었다. 수여 교사와 학교는 다음과 같다. 각 지역협의회 별로 장기 자랑 대회를 끝으로 거의 1 주일 간의 집중연수회를 포함한 학술대회는 개최지인 북가주 지역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12 년 미국 수도 워싱턴 디시에서 만나기로 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개교 20 주년 이상 한국학교 명단

번호	연수	설립연도	학교 이름	소속 지역	교장	이사장
1	40	1971	앤아버한국학교	미시간	심용휴	
2	35	1975	칼린한국학교	남서부	김윤희	정금조
3		1976	스태튼아일랜드한국학교	동북부	곽승용	유관겸
4	30	1979	뉴올리언즈한국학교	남서부	이해운	이기현
5		1979	콩코드한국학교	북가주	이영주	안극일
6		1980	벅스카운티한국학교	동중부	오정선미	
7		1980	디트로이트한국문화학교	미시간	한숙영	
8		1981	애틀란타한국학교	동남부	심승재	조성혁
9		1981	잭슨빌토요한국학교	플로리다	이창우	
10	25	1983	클리블랜드한국학교	중남부	이명진	하종철
11		1983	리하이밸리한국학교	동중부	이경수	
12		1984	빛의나라한국학교	북가주	김숙옥	
13		1985	뉴저지연합장로교회한국학교	동북부	김영철	

14		1985	이스트베이침례교회한국학교	북가주	이정옥	
15		1986	뉴욕한빛한국학교	동북부	서진섭	정해민
16		1986	성김대건한국학교	동북부	정향숙	박홍식
17		1986	델라웨어한국학교	동중부	박영은	
18	20	1989	포코노한국학교	동중부	문성록	
19		1989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한국학교	미시간	권순희	
20		1990	사랑한국학교	동북부	홍태명	변현수
21		1990	트렌톤한국학교	동중부	김정자	한성묵
22		1991	소노마카운티한국학교	북가주	홍수정	
23		1991	북가주세종한국학교	북가주	정해천	신영창

장기 근속 모범 교사 표창자 명단

번호	연수	성명	소속학교	지역협의회
1	45	허병렬	뉴욕한국학교	동북부
2	35	정삼숙	조지아장로교회한국학교	동남부
3	25	전설자	뉴저지한국학교	동북부
4		이광숙	뉴욕한빛 한국학교	동북부
5		황오숙	한빛지구촌한국학교	워싱턴
6	20	문성록	포코노한국학교	동중부
7		선우인호	애틀란타한국학교	동남부
8		오정선미	벽스카운티한국학교	동중부
9		김정미	델라웨어한국학교	동중부
10		송지은	스탁톤반석한국학교	북가주
11		장은영	임마누엘장로교회한국학교	북가주
12	15	김용순	샛별한국학교	중남부
13		김정자	트렌톤한국학교	동중부
14		서경주	빌립보한국학교	워싱턴
15		박원교	랜스데일연합한국학교	동중부
16		박현진	벽스카운티한국학교	동중부
17		강혜옥	트라이밸리한국학교	북가주
18		조은재	샛별한국학교	중남부
19		김진명	달라스한국학교	남서부
20		김윤희	킬린한국학교	남서부
21		심정균	한얼한국문화학교	동북부
22		신성자	성김대건한국학교	동북부
23		오소영	성김대건한국학교	동북부

24		유명숙	잭슨빌토요한국학교	플로리다
25	10	이소연	피츠버그중양한국학교	동중부
26		박미정	올랜도푸른동산한국학교	플로리다
27		신혜경	필몬트한국학교	동중부
28		박성심	벤엘한국학교	워싱턴
29		전숙희	벤엘한국학교	워싱턴
30		안순승	뉴욕브로드웨이한국학교	동북부
31		김수미	베다니한국학교	동북부
32		이인경	성김대건한국학교	동북부
33		박동진	애틀란타한국학교	동남부
34		양현숙	애틀란타한국학교	동남부
35		김인숙	벅스카운티한국학교	동중부
36		윤은남	델라웨어한국학교	동중부
37		정혜숙	리하이벨리한국학교	동중부
38		강옥향	필라델피아영생한국학교	동중부
39		한희영	새하늘한국학교	북가주
40		안명혜	가나다한국학교	북가주
41		이정현	성김대건한국학교	북가주
42		황현식	콩코드한국학교	북가주
43		이주연	실리콘밸리한국학교	북가주
44		유명희	달라스한국학교	남서부
45		유명렬	달라스한국학교	남서부
46		박윤정	킬린한국학교	남서부



